

# 일본 경제 동향\_2015년 9월

## (금융완화정책과 엔·달러 환율 전망)

< 목 차 >

<b>I. 일본 경제 지표</b> .....	<b>1</b>
<b>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</b> .....	<b>2</b>
1. 경기회복세 주춤 .....	2
2. 무역적자 확대 지속 .....	6
3. 엔고·저주가·저금리 .....	9
4.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.....	11
<b>III. 일본의 주요 정책</b> .....	<b>12</b>
1. 금융완화정책과 엔·달러 환율 전망 .....	12
<b>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</b> .....	<b>16</b>
1. 대일무역적자 3개월 만에 감소 .....	16
2.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.....	19
<b>V. 참고 자료</b> .....	<b>20</b>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.....	20
2. 주요 경제 일정 .....	22

# 1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3	2014	2014			2015					
			2/4	3/4	4/4	1/4	2/4	6월	7월	8월	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-	112.3	112.2*	-	
GDP증가율(연율,%)	1.6	△0.1	△7.5	△1.3	1.4	4.5	-1.2(p)	-	-	-	
국내투자 (조엔)	민간설비투자	66.0	69.5	16.3	17.7	16.2	20.4	16.1	-	-	-
	공공투자	23.0	24.5	4.2	5.2	7.3	7.2	4.7	-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13.2	12.6	2.0	2.1	4.9	3.5	3.7	0.6	1.1	-	
소비자물가 상승율(%)	전기비	0.4	2.6	2.3	0.3	△0.1	△0.3	0.2	0.0	0.0	-
	전년동기비	0.4	2.6	3.3	3.2	2.7	2.1	0.2	0.1	0.0	-
실업율(%)	4.0	3.6	3.6	3.6	3.5	3.5	3.3	3.4	3.3	-	
수출(조엔)	69.8	73.1	17.6	18.3	19.8	18.9	18.8	6.5	6.7	5.9	
수입(조엔)	81.3	85.9	20.2	21.2	22.1	20.4	19.1	6.6	6.9	6.5	
무역수지(조엔)	△11.5	△12.8	△2.6	△2.9	△2.3	△1.4	△0.3	△0.1	△0.3	△0.6	
경상수지(조엔)	3.3	2.6	0.3	1.7	1.4	4.2	3.8	0.6	1.8	-	
환율	달러	97.7	105.8	102.1	104.0	114.3	119.1	121.4	123.8	123.2	123.2
	원화(100엔)	1,123	996	1,008.2	987.3	950	923.3	904.7	899	927	958
금리(10년물,%)	0.72	0.55	0.60	0.53	0.44	0.34	0.40	0.47	0.44	0.38	
주가(닛케이)	13,651	15,460	14,655	15,562	16,660	18,226	20,058	20,404	20,373	19,919	

주: (p)는 2차 속보치 \*는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 □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주춤

○ ‘15.7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2.2로 전월비 0.1p 하락

## □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상승율 2개월 연속 체로

○ ‘15.7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0%

## □ (무역수지) 무역수지 5,697억 엔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 확대

○ ‘15.8월 수출은 5조 8,815억 엔, 수입은 6조 4,511억 엔

## □ (환율) 엔고 보합세

○ ‘15.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전월과 같은 123.2 엔

\* ‘15.8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8원으로 전월비 3.3% 엔고·원저

## 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### 1. 경기회복세 주춤

#### □ (경기기조 판단)

- 생산·수출이 2분기의 부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설비투자도 약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주춤
- '15.7월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)는 112.2 전월보다 0.1p 하락
- 경기동향지수 관련 지표 중, 광공업 생산과 중소기업 출하, 상업판매액 등이 하락



자료 : 내각부 \* 속보치

- 다만, 일본 내각부는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엔저를 배경으로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도 견조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, 경기 전체로서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
- 그러나 중국경제의 감속이 아시아 지역 전체로 파급됨에 따라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생산도 일진일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경기 동향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

#### □ (전 망)

- 최근 경기회복세의 주춤에도 불구하고 '15.3분기에는 최악의 2분기 상황으로부터는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민·관의 공통된 전망
- 그러나 여전히 중국경제의 감속과 식품가격 상승 등에 의한 기업·소비심리 악화가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
-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비 1.9p 하락, 5개월 만에 악화

## <GDP>

### □ '15.2분기 실질 GDP성장율 -1.2%로 수정

- 일본 내각부가 9월 8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GDP성장율 개정치(2차 속도치)는 전기비 -0.3%, 연율 -1.2%로 1차 속도치(전기비 -0.4%, 연율 1.6%)로부터 수정
- '15. 2분기 GDP성장율은 상향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3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분기 4.5%의 플러스 성장에서 크게 반전된 것인데,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이 주된 요인
  - 소비는 전기비 0.7% 감소했는데(1차 속도치 0.8% 감소), 엔저를 배경으로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이 계속 되는데다, 임금이 물가상승에 못 미친데 따른 소비자 심리의 냉각과 기후불순도 소비부진의 요인
  - 설비투자도 -0.9%로 1차 속도치(-0.1%)보다 크게 줄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, 생산 활동의 회복세가 더디고 설비투자의욕이 확대되지 못한데 따른 것임
  - 수출도 전기비 4.4% 감소함에 따라 외수기여도가 -0.3%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,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경제의 감속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수출둔화가 주된 요인
- 반면, 주택투자와 공공투자는 각각 전기비 1.9%(동 1.9%) 및 2.1%(동 2.6%)증가함으로써 마이너스 내수기여도 방어에 일조(0.0p)
- 한편, 일본의 10개 민간싱크탱크에 의하면, 3분기에는 실질경제성장율이 연율 1.9%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, 경기는 후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
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3	2014	2014				2015	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(p)
전기비			1.1	△2.0	△0.3	0.3	1.1	△0.3
<b>전기비연율</b>	1.6	△0.1	<b>4.5</b>	<b>△7.6</b>	<b>△1.1</b>	<b>1.3</b>	<b>4.5</b>	<b>△1.2</b>
전년동기비			2.4	△0.4	△1.4	△1.0	△0.8	0.8

자료: 내각부, (p)는 2차 속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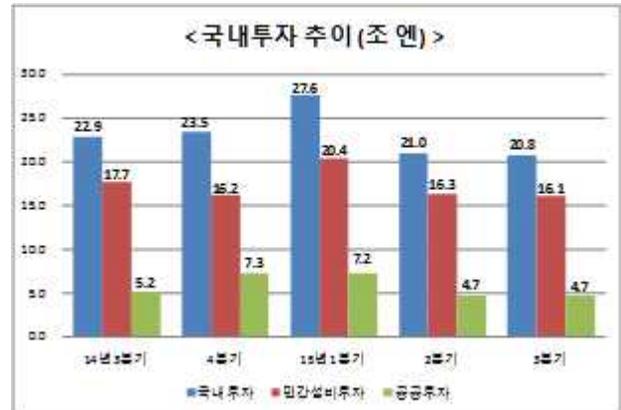
## <국내 투자>

### □ ‘15.2분기 국내투자 실질, 명목 모두 감소

- ‘15.2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)는 전기비 실질 0.2% 감소, 명목기준으로는 24.6% 감소한 20.8조엔

### □ (민간설비투자)

- ‘15.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.5% 감소한 16.1조 엔, 국내 투자의 77.4%를 차지
- 현재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수출과 소비부진에 의한 낮은 가동율로 생산설비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갱신목적의 투자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
- 일본은행 단관(단기관측) 등에 의하면 기업 수익의 호조와 투자마인드 개선이 투자계획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
  - 다만, ‘15.7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은 전월비 3.6% 감소



자료 : 내각부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### □ (공공투자)

- ‘15.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34.2% 감소한 4.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2.6%를 차지
- ‘15.2분기에는 공공투자의 증가율이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내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했으나, 7월과 8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이 줄고 있어 앞으로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

## 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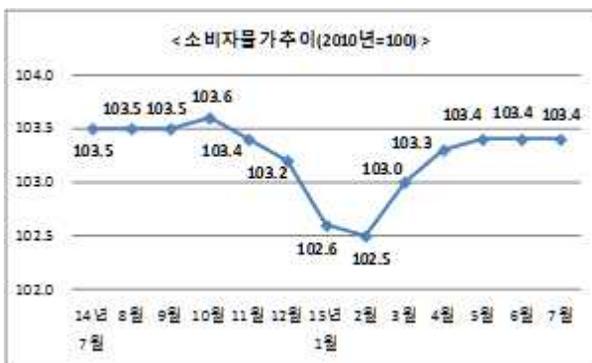
### □ '15.7월 소비자물가상승율 2개월 연속 제로

- '15.7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전월과 같은 103.4로 2개월 연속 0.0%
 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2년 2개월만에 상승세가 멈춤과 동시에,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율도 3개월만에 제로
  -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엔저를 배경으로 식료품(생선·식품 제외)가격과 TV 등 내구소비재 가격은 상승
- 앞으로도 당분간은 엔저 영향에 의한 상승압력과 에너지가격의 하락압력에 의해 물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

## <실업률>

### □ 3개월 만에 실업률 하락

- '15.7월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p 낮은 3.3%로 3개월 만에 하락
- 완전실업자수는 220만명으로 전월보다 2만명 감소
- 취업자수는 6,378만명으로 전월비 13만명 감소
  - 산업별로는 의료·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,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감소
- '15.7월 유효구인배율도 1.21로 전월보다 0.02p 상승, 2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## 2. 무역적자 확대 지속

### □ (중 합) 7개월 만에 최대 무역적자

- ‘15.8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3,013억 엔 늘어난 5,697억 엔 적자로 5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함께 ‘15.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적자폭 기록
  -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임
 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,729억 엔에서 4,855억 엔으로 확대,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,469억 엔에서 4,636억 엔으로 대폭 축소
  -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
- 앞으로도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입증가에 의한 대폭적인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< 2015년 8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수 출	6.7	7.6	2.4	5.9	3.1	-11.7	50.1	6.8
수 입	6.9	-3.2	5.4	6.5	-3.1	-6.9	52.9	-6.4
수 지	-0.3	-72.3	282.9	-0.6	-40.2	112.7	-2.8	-70.5

자료 : 재무성

### □ (수 출) ‘15.8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전월대비 감소

- ‘15.8월 수출은 5조 8,815억 엔으로 전월비 11.7% 감소
  - 전년 동월비로는 3.1% 증가
  - 수출물량도 전월비 11.6% 감소, 전년 동월대비로는 4.2% 감소
- 중국경제의 감속에도 불구하고, 미국과 유럽경제의 호조에 가세한 엔저기조 정착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○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자동차부품, 플라스틱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,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감소

-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

<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10,906	9.6	1.3	8,576	11.1	-21.4	75,907	9.8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426	9.0	2.8	3,390	3.9	-1.1	26,101	11.9
3	철강	3,113	10.6	1.6	2,929	-8.2	-6.0	25,588	-0.5
4	자동차부품	3,169	3.4	9.8	2,591	-2.0	-18.2	22,891	2.0
5	플라스틱	2,135	1.8	3.1	1,987	-0.8	-7.0	16,429	4.3

자료 : 재무성

○ 주요 수출상대 지역·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

- 對 EU 수출, 對 미국 수출의 감소폭이 가장 큼

-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7.1% 감소

<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미국	13,408	18.8	2.9	11,358	11.1	-15.3	100,131	16.2
2	중국	11,797	4.2	1.7	10,641	-4.6	-9.8	87,169	1.6
3	ASEAN	9,867	6.1	1.5	9,076	2.0	-8.0	78,602	10.6
4	EU	7,118	10.0	7.0	5,950	-0.2	-16.5	51,962	5.1
5	한국	4,512	3.1	-2.4	4,193	-2.5	-7.1	36,483	3.5
6	대만	4,058	10.5	0.9	3,691	8.8	-9.0	30,005	8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'15.8월 수입도 금액·물량 모두 감소

○ '15.8월 수입도 6조 4,511억 엔으로 전월비 6.9% 감소

- 전년 동월비로는 3.1% 감소

- 수입물량도 전월비 5.2% 감소, 전년 동월비로는 0.7% 감소

- 앞으로는 유가와 같은 수입가격 요인 외에 경기회복에 의한 수입량 증가도 예상
-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의류·동부속품, 의약품,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의류·동부속품의 순위가 높아짐
  - 수입증가품목은 의류·동부속품, 의약품, 액화천연가스의 순으로 증가폭이 큼
  - 수입감소품목은 원유,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감소폭이 큼

<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8,823	-24.6	31.1	7,649	-32.9	-13.3	58,319	-39.1
2	액화천연가스	3,956	-40.7	7.9	4,150	-30.2	4.9	39,509	-23.6
3	의류·동부속품	2,833	8.7	24.7	3,449	12.0	21.7	21,653	7.3
4	의약품	2,676	25.4	14.0	2,877	53.6	7.5	18,365	23.1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650	19.9	4.6	2,329	3.2	-12.1	19,913	6.8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별로는 모두 수입이 전월보다 감소한 가운데, ASEAN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-10.3%로 가장 크고, 이어 한국, 중국, 호주, 미국, EU 순
 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9.3% 감소

<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6,526	13.5	5.1	15,495	14.6	-6.2	109,813	-9.0
2	ASEAN	10,413	0.7	4.5	9,342	0.3	-10.3	69,996	-13.3
3	EU	7,906	13.5	13.5	7,685	21.8	-2.8	48,127	-10.8
4	미국	6,939	7.5	-4.1	6,722	5.4	-3.1	41,999	-15.4
5	호주	3,613	-22.4	9.0	3,484	-16.5	-3.6	25,607	-24.5
8	한국	2,766	-8.9	-0.9	2,510	-4.1	-9.3	19,324	-16.8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# 3. 엔고 · 저주가 · 저금리

#### □ (주 가)

- ‘15.8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2.2% 하락한 19,919엔
  - 9월 들어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주가하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18,000엔대까지 하락

#### □ (금 리)

- ‘15.8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.6% 하락한 0.38%
  - 9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9월 17일 기준 0.365%까지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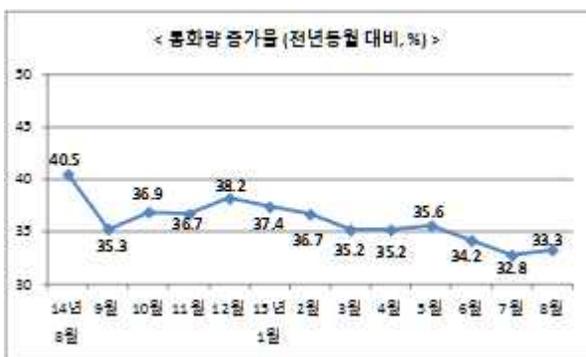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#### □ (통화량)

- ‘15.8월 본원통화(머니터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3.3%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재무성

□ (환율)

- ‘15.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과 같은 123.2엔
  - 9월 들어서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엔고 진행, 9월 18일 기준 119.8엔
- 당분간은 미·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(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,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),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  -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(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, 달러당 약 100엔)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·조정 가능성이 큼
- ‘15.8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8원으로 전월의 927원에 비하여 3.3% 엔고·원저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# 4.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

□ **(동향)** 투자규모가 큰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

○ '15년 7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1,399억 엔으로 전월비 83.2% 증가로 반전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3	2014	2015						
		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
금 액	131,946	125,929	13,833	9,244	10,023	20,757	6,223	11,399	
증가율	전기비	34.9	-4.6	16.2	-33.2	8.4	107.1	-70.0	83.2
	전년동기비	34.9	-4.6	113.3	28.2	-51.3	177.1	-11.4	39.6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지역별)** 아프리카, 아시아,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폭 커

○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349.1%로 가장 크고, 이어 아시아,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폭이 큰 한편, 對 미국 투자도 마이너스(투자 철수)에서 1,143억엔으로 반전

- 對 중국 투자는 21.3% 감소한 반면, 對 한국 투자는 8% 증가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%)>

	2014년		2015.6월			2015.7월	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25,939	-4.6	6,223	-70.0	-11.4	11,399	83.2	39.6
아시아	37,617	-4.3	2,541	-62.6	-10.5	4,529	78.2	54.1
중 국	7,150	-19.3	973	24.6	16.4	766	-21.3	67.6
한 국	3,328	3.7	412	343.0	104.9	445	8.0	-1.8
북 미	46,264	1.2	-124	-	-	1,176	-	-
미 국	44,365	3.3	-167	-	-	1,143	-	-
중남미	7,710	-22.1	867	-53.2	335.7	1,169	34.8	220.3
유 럽	26,310	-16.7	2,486	-20.8	55.2	3,909	57.2	42.4
대양주	5,963	1.2	280	-95.6	-56.7	262	-6.4	95.5
중동	527	-	117	244.1	-41.2	98	-16.2	53.1
아프리카	1,539	205.4	57	-67.1	-77.3	256	349.1	20.8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특이점)**

○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&A가 가속화, 8월 20일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77% 증가한 7조 1,685억 엔으로 연간 과거 최고였던 2012년을 상회

-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&A가 증가

### 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 금융완화정책과 엔·달러 환율 전망

##### □ 금융완화의 현상유지

- 일본은행은 9월 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신흥국의 경기 감속과 이에 따른 일본 국내 수출과 생산에 대한 악영향을 지적하기도 했으나, 연간 80조엔 규모의 금융완화는 현상유지하기로 함
- 현재 물가하락이나 총 수요의 부진 등 작년 10월 추가 금융완화 시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, 가일층의 추가완화는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만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임
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유가동향에 따라서는 2% 물가상승율 목표달성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발언, 2016년 전반으로 설정된 2% 물가상승목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
- 또한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
  - 물론 물가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추가완화를 실시한다고 하여 추가완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
- 일본은행은 당분간 현행 금융완화를 실시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, 다만 중국경제의 감속 우려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추가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

##### □ 일본경제에 대한 일본은행의 진단

- 일본 국내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
  - 기업실적과 고용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는 소비도 서서히 회복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

- 소비자물가상승율도 최근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%정도에 그치고 있으나, 유가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는 상승해나갈 것으로 전망
  - 구로다 총재는 예상물가상승율도 포함하여 물가기반이 탄탄한 편으로, 장기적으로는 전체로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면서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
  - 기업들의 제품·서비스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을 들면서 기업과 가계의 물가상승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
  - 이에 현행 금융완화를 계속함으로써 2016년 상반기에는 2%의 물가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다만, 수출환경에 대해서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감속을 우려, 수출생산 전망을 하향수정

#### □ 일본경제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진단

- 그러나 실물경제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강조하는 만큼 견조하지 않아, 그동안 일본은행이 실시해온 이차원 금융완화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
- 9월 16일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&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+로 한 단계 강등
  - 아베노믹스가 2-3년내 성장회복과 디플레이이션 탈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임
- 최근 월스터리트저널(WSJ)도 일본의 양적완화·재정확대·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저평가하고, 추가경기부양책 검토, 소비세추가인상의 연기 가능성 등을 전하면서 이같은 노력이 일본경제의 신뢰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
- 실제로 2015년 2분기 실질 GDP가 -1.2%로 1분기의 4.5% 성장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가운데, 식료품의 가격인상으로 연금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
  -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도 세계적인 추가하락 등 시장의 혼란으로 주춤

- 2% 목표를 설정한 소비자물가상승율도 2개월째 0%대에 머물러있어 디플레이션 탈출가능성이 희박
- 무역수지도 중국의 경기감속 등으로 8월 무역수지가 5,697억 엔으로 7개월 만에 최대적자폭을 기록

## □ 추가완화의 가능성과 그 변수

-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기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저없이 조정할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
- 그러나 추가완화를 둘러싸고는 대내적으로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, 대내적인 관문의 하나가 가계 부담을 의식하기 시작한 일본정부임
  - 아베 총리는 최근 경제자문회의에서 휴대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
  - 이와 관련하여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와의 생각차이에 대해서는 구로다 총재는 분명히 부정하고 있음
  - 그러나 추가완화로 인한 엔저가속으로 수입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인상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됨
  -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의 10% 재인상에 대해서도, 일본은행은 일본정부가 확실히 단행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
  - 만약 소비세 재인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은행으로서도 추가 금융완화가 불가피함
  - 금융완화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려해도 효과나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임
  - 이에 일본정부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
-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도 관문임

- 미국 FRB가 금리인상에 착수하든 않하든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

## □ 엔·달러 환율 전망

- 엔·달러 환율은 중국경제의 감속과 추가급락이라는 중국쇼크로 8월 24일 116엔까지 강세로 전환, 이후도 119엔대에 머무르고 있음
- 중국 쇼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는 맞물려 당분간 엔·달러 환율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변수로 등장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엔저 시나리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
  - 미국이 머지않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
- 그러나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앞으로 중국 정세가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엔고의 진전·정착 시나리오도 가능
  - 그 경우에도 엔·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하락폭이 6.8엔(미국의 2년물 채권금리를 기본으로 계산하여 동 금리가 하락한 경우라도)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현실적인 문제로서도 엔고가 정착되게 되면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관측이 높아짐으로써 엔화 강세는 억제될 수 있게 됨
- 따라서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로 선회하지 않는 한, 110엔 이상의 엔고가 정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
- 다만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감속이 예상되기 때문에, 일시적으로 엔고폭이 커질 위험은 종래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,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

## 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### 1.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

#### □ (중 합)

- ‘15.8월 대일무역적자는 7월보다 233백만 달러 감소한 1,566백만 달러로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
  - 이는 대일수입과 대일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축소균형의 무역적자 축소
-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.6%에서 4.8%로 상승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.2%에서 9.9%로 저하
 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1%에서 7.2%로 상승

< 2015년 8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 수출	2,150	-28.1	-3.8	1,898	-24.7	-11.7	17,355	-20.0
대일 수입	3,949	-14.8	-1.6	3,464	-17.9	-12.3	31,249	-12.4
무역 수지	-1,799	159	21	-1,566	-131	-233	-13,893	-59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#### □ (대일 수출)

- ‘15.8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11.7% 감소, 전월보다 감소폭이 큼
  - 이 같은 감소폭은 총수출의 감소폭 -14.2%보다는 적으나 일본의 수입감소폭 -6.9% 보다는 큼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
2015. 7월	-28.1	<b>-3.8</b>	-3.4	<b>-0.1</b>	-3.2	<b>5.4</b>
2015. 8월	-24.7	<b>-11.7</b>	-14.9	<b>-14.2</b>	-3.1	<b>-6.9</b>
2015.1-8월	-20.0	-	-6.3	-	-6.4	-

- '15.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광물성연료, 금속광물,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감소
  -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-33.6%로 가장 크며, 이어 석유화학제품과 산업용전자제품의 대일수출도 30% 전후의 큰 감소폭을 보임
  -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이 23.8%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

< 2015년 8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150	-28.1	<b>-3.8</b>	1,898	<b>-24.7</b>	<b>-11.7</b>	17,355	-20.0
1	광물성연료	243	-63.4	<b>-17.3</b>	288	<b>-50.1</b>	18.5	2,369	-47.1
2	철강제품	241	-30.5	<b>-3.6</b>	238	<b>-23.8</b>	-1.4	1,989	-28.1
3	전자부품	210	8.1	<b>4.0</b>	186	2.7	<b>-11.4</b>	1,564	-3.2
4	정밀화학제품	122	-14.9	<b>-14.1</b>	127	14.2	4.0	964	-4.4
5	금속광물	84	-4.9	2.4	104	7.8	<b>23.8</b>	706	-1.4
6	석유화학제품	132	-31.7	<b>-10.2</b>	92	<b>-32.3</b>	<b>-30.3</b>	937	-16.0
7	산업용전자제품	125	-51.7	<b>-35.2</b>	88	<b>-46.0</b>	<b>-29.6</b>	1,668	-8.0
8	수송기계	122	3.0	<b>18.4</b>	81	<b>-11.5</b>	<b>-33.6</b>	803	-5.9
9	농산물	83	-14.5	<b>-6.7</b>	73	<b>-16.8</b>	<b>-12.0</b>	659	-10.2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89	-23.9	<b>9.9</b>	70	<b>-19.2</b>	<b>-21.3</b>	630	-17.4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(대일 수입)

○ ‘15.8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12.3% 감소, 전월보다 감소폭이 큼

- 그러나 총수입의 감소폭 -18.3%보다는 적어 대일수입의존도 저하로 이어짐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
2015. 7월	-14.8	-1.6	-15.3	5.9
2015. 8월	-17.9	-12.3	-18.3	-10.0
2015.1-8월	-12.4	-	-15.8	-

○ ‘15.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

- 산업기계의 감소폭이 -32.0%로 가장 크고, 정밀기계, 기초산업기계, 수송기계 등도 -25% 이상 큰 감소폭을 보이는 등 자본재의 대일수입수요가 크게 감소

< 2015년 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7월			2015.8월			2015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 계	3,949	-14.8	-1.6	3,464	-17.9	-12.3	31,249	-12.4
1	전자부품	515	0.2	9.8	503	-7.1	-2.3	4,047	1.2
2	철강제품	464	-38.9	-11.1	449	-32.6	-3.2	4,016	-29.1
3	석유화학제품	431	-25.3	3.1	364	-29.2	-15.5	3,379	-15.1
4	정밀화학제품	313	-18.0	-1.6	299	-8.5	-4.5	2,542	-12.1
5	기초산업기계	298	8.7	-0.7	223	-19.9	-25.2	2,090	-10.7
6	정밀기계	244	67.8	26.4	173	9.5	-29.1	1,909	17.2
7	수송기계	212	-2.7	-3.6	159	-21.2	-25.0	1,634	-1.1
8	산업용전자제품	212	-3.3	-8.2	182	-7.7	-14.2	1,709	-11.7
9	플라스틱제품	198	-22.2	2.6	182	-20.6	-8.1	1,570	-18.2
10	산업기계	194	-22.4	3.2	132	-28.0	-32.0	1,368	-14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.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로 반전

### □ (동 향) '15.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대폭 증가

- '15.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84백만 달러로 전기비 136.7% 증가
 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.5%를 크게 상회
  - 건수는 전기비 0.2% 감소
  - 전분기 급감에 따른 반작용과 건당 투자규모 확대의 영향도 증가 반전에 기여
- '15.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973백만 달러로 전기비 27.3% 감소
  - 건수는 2.9% 감소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		2014.4분기		2015년.1분기		2015.2분기		2015.1-2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352 (21.3)	2,488 (-7.5)	103 (45.1)	850 (73.8)	85 (-17.5)	289 (-66.0)	84 (-0.2)	684 (136.7)	169 (-2.9)	973 (-27.3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2,463 (-5.6)	19,003 (30.6)	746 (32.5)	4,185 (-6.7)	558 (-25.2)	3,555 (-15.1)	742 (33.0)	5,316 (49.5)	1,300 (-0.7)	8,871 (2.3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### □ (한·일 기업간 협력 사례)

- 도레이가 LG화학 오창공장 설비를 약 30억엔에 매입,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(BSF)의 100% 출자 자회사를 현지에 설립하고, 약 1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(2015.9.16. 닛케이)
- 일본의 금속표면처리 기업인 과커라이징이 2019년까지 모두 50억 원(외국인직접투자 500만 달러)을 투자해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1만5천㎡의 부지에 방청유 및 세정제 생산 공장을 설립(2015.8.11. 아시아경제)

### □ (시사점)

-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 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
  -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5.8월~2015.9월)

#### □ 국내 기관

- 『아베노믹스 발목잡고 있는 일본의 노동개혁』 LG경제연구원, 2015년 9월22일  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overseas/article.asp?grouping=01010200&seq=691>
- 『[일본경제연구회] 일본의 장기침체가 한국에 주는 시사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5년 9월21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517>
- 『아베노믹스 평가 및 시사점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5년 9월18일  
[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andtrade\\_view.jsp?pageNum=1&nGubun=10&s\\_con=&s\\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&sClassification=&actionName=&sNo=1363](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andtrade_view.jsp?pageNum=1&nGubun=10&s_con=&s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&sClassification=&actionName=&sNo=1363)
- 『대일(對日) 캐치업 이후의 한국 제조업』 산업연구원, 2015년 9월16일  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9&state=view&idx=51595&ord=0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9&state=view&idx=51595&ord=0)
- 『한중일 철강 수출구조의 변화와 시사점』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년9월16일  
<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lists>
- 『일본은행,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』 한국은행, 2015년 9월15일  
<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d=2229>
- 『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5년 9월15일  
[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andtrade\\_view.jsp?pageNum=1&nGubun=10&s\\_con=&s\\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&sClassification=&actionName=&sNo=1359](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andtrade_view.jsp?pageNum=1&nGubun=10&s_con=&s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&sClassification=&actionName=&sNo=1359)
- 『일본에서 배우는 아프리카 자원개발 - 적극적인 자원개발 유도해야』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년 8월26일  
[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\\_id/2294/page/](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_id/2294/page/)

## □ 일본 기관

- 『일본의 경상흑자 구성변화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』 국제통화연구소, 2015년 9월19일  
[http://www.iima.or.jp/Docs/topics/2015/272\\_j.pdf](http://www.iima.or.jp/Docs/topics/2015/272_j.pdf)
- 『생활서비스 산업이 2025년 사회를 바꾼다』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2015년 9월15일  
<http://www.keidanren.or.jp/policy/2015/078.html>
- 『모노즈쿠리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: 산업집적을 활용한 자립적 전개』, 조요우 지역연구센터, 2015년 9월12일  
<http://www.arc.or.jp/ARC/201509/ARC1509gatu/1509ronnsetu.pdf>
- 『동아시아와의 FTA가 효과적인가 : ACFTA/AFTA와 일본의 FTA를 이용한 서플라이체인 형성을 모색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5년 9월10일  
<http://www.iti.or.jp/>
- 『일본의 수출구조 분석 : 뉴 노멀(new normal) 시대에 대미수출의 과제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5년 9월10일  
<http://www.iti.or.jp/>
- 『중국의 주가하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』 EY종합연구소, 2015년 9월10일  
<http://eyi.eyjapan.jp/knowledge/future-society-and-industry/2015-09-09.html>
- 『ICT의 경제 분석에 관한 조사(2014년)』 일본 총무성, 2015년 9월4일  
[http://www.soumu.go.jp/johotsusintokei/linkdata/ict\\_keizai\\_h27.pdf](http://www.soumu.go.jp/johotsusintokei/linkdata/ict_keizai_h27.pdf)
- 『공유경제(sharing economy)시장에 관한 조사결과(요약)』 야노경제연구소, 2015년 9월3일  
<http://www.yanoict.com/report/10744.html>
- 『엔저에 따른 리세어링(제조업의 국내회귀) 가능성(후편)』, 일본경제연구소, 2015년 9월2일  
[http://www.jeri.or.jp/membership/pdf/research/research\\_1509\\_01.pdf](http://www.jeri.or.jp/membership/pdf/research/research_1509_01.pdf)
- 『제4회 한일 다이어로그 :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,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』 일본국제문제연구소, 2015년 9월2일  
[http://www2.jiia.or.jp/pdf/resarch/H26\\_JapanKoreaDialogue/H26\\_JapanKoreaDialogue.php](http://www2.jiia.or.jp/pdf/resarch/H26_JapanKoreaDialogue/H26_JapanKoreaDialogue.php)
- 『TPP는 메가 FTA의 기폭제, 일본의 성장전략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5년 8월29일  
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today/rt150828.pdf>

## 2. 주요 경제 일정

### <9월 실적>

일자	주요내용
1	• 전력거래감시 등 위원회 발족(경산성)
4	• G20 재무장관회담(앙카라)
7	• 일-터키 EPA 교섭
	• 7월 경기동향지수(내각부)
8	• 7월 국제수지(재무성)
	• 2분기 GDP 개정치(내각부)
9	• 한일 상공회의소회장단 회의(후쿠오카)
10	• 7월 기계수주(내각부)
12	• 한중일 농업장관회의(도쿄)
16	• 8월 방일방문객 수 발표(일본정부관광국)
19~20	• 한일 축제 한마당(서울)
23	• 미얀마 티라와공단 준공
25	• 9월 월례경제보고(내각부)
	• 8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
26~27	• 일한축제 한마당(도쿄)

### <10월 예정>

일자	주요내용
26~27	• 한일재계회의(도쿄)
29~30	• 한일/일한재단 연락협의회
미정	• 한중일 통상장관회담 예정(서울)